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1

글 히로시마 레이코 그림 자자 옮김 김정화
크기 128*188mm 중량 296g 쪽수 184쪽
값 14,000원 펴낸날 2024년 12월 4일
펴낸곳 길벗스쿨 대상 초등
ISBN 979-11-6406-869-2 (73830)

문의 박수선 (02-330-9862 / hyangkie@gilbut.co.kr)
검색 키워드 초등, 판타지소설, 환상동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원작, 드라마원작, 마법, 창작동화, 어린이문학, 베스트셀러, 한학기한권읽기, 권선징악, 교훈, 초등필독서, 독후활동, 전천당

ISBN	도서명(상품명)	인증유형	주의사항	사용연령	제조일	제조국
9791164068692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1	공급자적합성확인	없음	8세 이상	2024. 12.4.	대한민국

- ★ 독보적인 판타지 동화 시리즈 ★
- ★ 1,100만 부 돌파! 세계적 베스트셀러 ★
- ★ 인기 애니 뮤지컬 영화 원작 ★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시즌2 행운의 갈림길로 새롭게 출발!

“전천당과 수상한 책방의 기상천외한 이야기 속으로”

1. 줄거리

〈전천당〉에 양심을 품던 천재 박사 로쿠조 교수가 물러나고 베니코는 행운의 손님을 맞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천당〉이 있는 골목에 〈선복서점〉이라는 책방이 새로 생긴다. 가게 이름처럼 착한 마음씨로 손님의 행복을 기원하는 책을 파는 곳이다. 고요하던 골목에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전천당〉을 찾아왔던 행운의 손님이 〈선복서점〉에서 과자와 책을 맞교환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선복서점〉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런 책을 파는 것일까?

손님 하기에 따라 행운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하는 과자를 파는 곳 〈전천당〉과 손님의 행복만을 바라는 책을 파는 곳 〈선복서점〉. 두 가게의 이상하고도 기묘한 관계가 시즌2에서 이어진다.

2. 책 소개

■ 새 간판 내걸고 시즌2로 출발하는 전천당

처음 읽는 독자도, 계속 읽은 독자도 모두를 두근거리게 할 이야기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20권》을 이어 전천당 스물한 번째 이야기가 시즌2 ‘행운의 갈림길’ 제목으로 새로이 시작한다. 20권 내용과 이어지면서도 색다른 이야기 설정과 인물의 등장이 재미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행운의 갈림길 1권》은 전20권으로 구성된 전천당 시리즈를 읽기에 부담스러웠던 독자들도 편하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다. 시즌1부터 읽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책 앞장에 전천당 가게의 영업 방식과 등장인물을 소개하였다.

전천당을 꾸준히 읽어 온 독자들은 새로운 가게와 인물에 빠져들 것이다. 악역으로 박진감을 일으켰던 시즌1의 요도미, 카이도, 로쿠조와 다르게 시즌2의 책방 주인 젠지는 미스터리하면서 매력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한다.

시즌2에서도 여전히 기상천외한 과자와 장난감 등이 등장한다. 고민과 걱정을 제로로 없애 주는 〈제로 젤리〉, 사라졌던 열정과 파워를 솟아나게 하는 음료 〈열정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 보게 해 주는 반지 〈체인지 링〉, 원하는 책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는 〈동화 벨〉 등이 행운의 손님들의 손에 쥐어진다.

전천당 속 손님들이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을 읽으면서 독자들도 자기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해결하고 책임지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 수상한 책방 〈선복서점〉의 등장

〈전천당〉의 라이벌인가, 조력자인가

〈전천당〉 근처 오랫동안 비어 있던 가게에 책방이 들어선다. 웃는 눈매에 선한 인상을 가진 젊은 남자가 책방 주인인데, 어딘가 비밀에 싸여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는 〈전천당〉에서 음료수를 구입한 행운의 손님에게 자기 책방의 책과 교환하길 권한다. 전천당 상품의 효과와 비슷하면서 다른 행운을 가져다주는 〈선복서점〉 책. 결국 전천당 손님은 음료수와 과자를 교환하고, 책방 주인은 전천당 상품을 손에 쥐게 된다.

〈선복서점〉의 주인은 전천당에 위협이 될 인물인지,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될 인물인지, 책방 영업의 이유와 주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모든 게 궁금해진다. 전천당의 시즌2를 이끌어갈 새 가게

와 인물에 숨겨진 이야기가 서서히 공개될 것이다.

■ 행운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불운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한층 더 깊어진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와 행복에 관한 작가의 메시지

전천당 시즌1에서는 행복과 불행의 대립 구조를 보였다. 전천당 영업을 방해한 화양당의 요도미와 천옥원의 카이도, 천재 박사 로쿠조가 인간의 악의, 질투, 불행한 감정을 이용하여 전천당의 베니코를 늘 방해했었다.

반면 전천당 시즌2에서는 행복과 행복의 대립 구조를 보여준다. 손님들의 행복을 바라긴 하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전천당의 베니코와 선의의 마음으로 손님들의 행복만을 바라는 <선복서점>의 켄지를 통해 행복한 삶에 대한 작가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행운이 불운이 되기도 하고, 불운이 되기도 하는 삶의 양면성. 그리고 선함이 악함이 되기도 하고 악함이 선함이 되기도 하는 인간의 양면성에 대하여 히로시마 레이코 작가는 이번 시즌에서 더 깊이 있게 전한다.

■ 한국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1,100만 부 돌파

재미는 기본, 독서력 통찰력 사고력 향상에 전문가들 호평

일본 판타지 동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시리즈는 한국, 대만 등 전 세계로 번역 출간되면서 누적 1,100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다. 각 권이 움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개가 빠르며 흡입력이 강해 단숨에 읽어 내려간다.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깊게 몰입할 수 있다.

이 책이 가진 이야기의 힘은 독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또한 웹소설 및 짧은 글에 익숙한 아이들도 한번 읽기 시작하면 뒷내용이 궁금하여 멈추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읽는다.

어린이 독자들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 시리즈는 독서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읽힌다. 흥미진진한 동화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덕적 가치관,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 선택에 따른 책임감, 내면의 고민과 문제 해결 능력 등 심오한 철학적 사고를 토론하고 배워 나간다.

3. 책 속으로

한숨만 절로 나오던 그때, 고토미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옆을 돌아보니 좁은 골목이 보였다. 골목 안쪽 어두운 곳에서 고토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토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섭긴 한데 가 보고 싶어. 이 골목에 들어가 보고 싶어. 이렇게 나를 부르고 있잖아. 괜찮아. 나도 이제 5학년이나 됐는걸.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마침내 고토미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자그마한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간판이 걸려 있는 과자 가게였다. 그 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기한 과자들이 잔뜩 놓여 있었다.

<제로 켈리 편> 14쪽

그렇게 인정하자 곧 후카의 마음속에 있던 시샘과 질투가 스르륵 녹아내렸다. 후카는 ‘귀여움’에 집착하는 짓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역지로 웃어 주고 귀여워 보이려는 행동은 이제 그만해야지. 앞으로 나답게 살 거야. 진짜 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말이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한 후카는 유나의 손을 잡고 보건실로 향했다.

이렇게 후카는 <심쿵 머스켓>을 먹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만약 후카가 설명서를 읽었다면, 설령 마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심쿵 머스켓>을 먹었을지 모른다.

<심쿵 머스켓> 74쪽

베니코는 한숨을 쉬며 불행 벌레를 병에서 꺼내 준 뒤 날아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아쉽군요. 손님이 리본 뒷면에 적힌 주의 사항까지 다 읽지 않으셨나 봅니다. 어쩌면 읽으셨다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스스로 행복해질 방법을 찾지 않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기만 했으니까요. 그런 시기심은 결국 불행을 초래할 따름이지요. 으음, 다음에는 꼭 금색 마네키네코가 태어나 졌으면 좋겠는데요…….”

<체인지 링> 129쪽

4. 독자들의 추천평

- ★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다. 어른에게도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마법 같은 책(Li Jiawen)
- ★ 아들이 글밥 많은 책 안 읽으려고 하는데, 전천당은 술술 읽네요(g*****1)
- ★ 긴 시리즈를 읽어 가는 동안 아이의 독서력이 향상되어요(g*****0)
- ★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 바로 전천당을 읽는 순간(a*****0)
- ★ 역시 전천당. 페이지 넘길 때마다 궁금증 유발(kj****)

5. 목차

프롤로그	9
제로 젤리	11
열정수	29
심쿵 머스켓	53
프라이드 감자튀김	77
개점 준비	103
체인지 링	107
동화 벨	131
맛있소다	163
에필로그	180

6. 저자 소개

글 히로시마 레이코

일본의 판타지 소설 작가로 어린이들의 두터운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 요정의 숲》으로 제4회 주니어 판타지 소설 대상을 수상하였고, 《신을 지키는 아이》로 제34회 우츠노미야 어린이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된 작품으로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십 년 가게>,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트러블 여행사>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그림 자자

일본 후쿠오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2011년에 디자이너로 독립해 일러스트를 그리며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작품으로 《너를 위한 최고의 선물》,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숲속 세탁소 시라키구 할머니>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번역 김정화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한일아동문학을 공부하며 일본의 좋은 어린이 책을 국내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책으로 《폭풍우 치는 밤에》, 《보노보노,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 <비밀의 보석 가게 마석관>, <트러블 여행사>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제 품 명 :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행운의 갈림길 1

제조사명 : 길벗스쿨
제조국명 : 대한민국

사용연령 : 8세 이상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0길 56 (서교동)

전화번호 : 02-332-0931 제조년월 : 판권에 별도 표기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